**리처드 슈스터만**

**바바라 포미스**

*몸 의식하기: 신체의 미학을 위한*

몸에 대한 또 한 권의 책이 나왔다. 그러나 이 책은 다른 책들과는 다르다. 만약 최근에 이론적인 작업에서 몸이 창조적인 영간의 원천이며 철학적 논쟁의 장소로 다루어졌다면, 리처드 슈스터만은 그의 최신작에서 새롭고 독특한 전환점을 제공하였다.

이 미국 철학자는 몸을 그것의 가장 눈부신 기능에 대해서가 아니라 일상의 사용에 대해 고려한다 슈스터만의 책 『몸 의식하기』는 그가 자신의 책의 제 1장에서 다룬 푸코의 경우처럼, 강한 몸의 감각의 스릴을 해방시키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며, 내재적으로 무언의 그리고 “절름거리는”것, 즉 메를로 퐁티의 개념에서 추적할 수 있는 것에 주목하지도 않는다. 대신에 그는 몸은 그것의 인간성과 개인성에 근거한 활동적인 것이다라고 말한다

몸에 대한 최근의 책들과 비교했을 때, 리처드 슈스터만의 책의 참신함은 포착하기 힘들면서도 명백하다. 그것은 다음의 두 이유로 요약된다. 몸의 정상상태와 경험된 삶의 방식이 그것이다. 이 철학자는 가장 단순한 상태에서 몸을 특성화하는 그것의 기능부전과 능력으로 몸을 다시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경험된 방식에서 같은 몸의 실재를 다룬다. 게다가, 그러한 경험은 내적인 불질적 감각으로 환원되지 않으며 그것의 관찰자가 보는 해부학적 자세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그러므로 몸의 경험은 그 자체의 지각과 다른 것과의 상호작용 둘 다를 의미한다. 만약 현상학과 특히 메를로 퐁티의 몸의 철학이 이미 이 경로를 택했다면, 리처드 슈스터만의 프라그마티즘의 미학은 더 넓게 경험된 방식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병리학적 시도에서 거리를 둔다.

사실상 모든 것은 이 책의 부제와 이 미국의 철학자가 10년 넘게 옹호한 본래의 철학적 개념 에서 드러난다. 즉 신체의 미학(Somaesthetics)에서 말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개선적 그리고 비평적 경험과 그것을 만든 이의 형태를 다듬고 평가하는 미적 감각(aesthèsis)으로 만들어진 몸의 사용”이라고. 우리는 쉽게 개량, 비평, 감상 그리고 창작 같은 연구의 미적 관점을 볼 수 있다.

첫 번째 관점으로 리처드 슈스터만은 일상생활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미적 차원을 고려한 존 듀이의 이론을 높게 평가한다. 두 번째 관점으로, 신체의 미학을 향한 비평이 있다. 이것은 칸트의 유산일 뿐 아니라, 리처드 슈스터만이 연구하여 책까지 쓴 삐에르 보르도의 생각의 영향이기도 하다. (보르도: 비평적 독자, 옥스퍼드, 블랙웰, 1999)

마지막으로, 앞의 두 관점을 고려하여, 예술 작품의 기능이 언급된다. 몸은 때때로 감상자에 의해 지각된 예술작품으로서 감상과 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에서 만들었을 때 때때로 창작의 재료의 대신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몸에 대한 관점을 생각해보면, “의식”이 순수하게 추상적이고 지적으로, 그러나 대신에 직접적 의식을 육체적으로 느껴진 그리고 이성적으로 분석된 경험의 차원으로 받아들이는 상태인 주체적 상태로서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은 놀랄 일도 아니다.

이러한 몸과 그것의 의식의 풍요롭고 근본적인 유사점은 리처드 슈스터만의 생각에 있어서 두 가지 경향에 관련된다. 그것은 바로 펠덴크라이스 방식의 실천과 아시아 철학의 중요성의 되살림이다.

모터 엑션과 자세의 신체적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몸의 훈련의 직접적 경험, 뿐만 아니라 경험을 기본 뿌리로 하는 이론적 연구도 또한 이 철학자가 단지 외면에서뿐만 아니라 직접적이고 개인적 경험에서 몸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고려에서 리처드 슈스터만은 현대 철학의 다양한 중심적 특징들을 신체의 미학이라는 특수한 시도를 통해 재검토한다. 만약 미셸 푸코, 메를로 퐁티, 그리고 존 듀이라는 인물들이 분석의 중심이 되는 원소 제공한다면, 이 저자는 그 철학자들에게 드리워진 척도를 흔히 이 기준에서는 예상되지 않은 범위로 확장한다.

우리는 리처드 슈스터만이 그만의 방법으로 연구해온 감각과 몸의 태도를 미학적, 정치적, 또는 윤리적 문제와 연결 된 고찰에서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과 윌리엄 제임스를 대표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시몽 데 보봐르의 사상은 이 작업에 있어서 성의 문제나 노화의 문제와 관련된 몸적 다름(bodily difference)을 소개함으로서 책이 단편적 관점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이라고 불 수 있다. 이 책의 명백한 목적 이론적 분석을 넘어 우리의 몸을 통한 경험을 강화시키는 신체적 방법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 만약 이것이 야심만만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이 신체의 미학을 한 사람의 더 좋은 경험을 위한 매뉴얼적인 지도로 한계 짓지 않는 다는 것을 더해야만 할 것이다. 신체의 미학은 사람이 몸을 통한 미적 경험을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완전히 길러내는 미학을 주장한다.

한글번역/ 이혜진